



# 혁신과 발전을 향하는 LINC 3.0!

## 콘텐츠 제작 설명회부터 장학금 수여식까지



▶ 콘텐츠 제작 설명회 현장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이 XCCT(글로벌빌리지 206호)에서 '콘텐츠 분야 장비 및 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설명회'를 개최했다.

'콘텐츠 분야 장비 및 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설명회'는 콘텐츠 분야 기업체를 대상으로 요즘 발전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방향성과 사업단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고 극대화해 어떤 콘텐츠를 제작·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장비·기술 융합형 설명회다.

부산 지역 설명회에서는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이 보유한 비주얼 스튜디오 장비와 운영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경일대, 한림대, 대전대 등 전국 LINC 3.0 사업 콘텐츠 분야 ICC 센터장과 공용장비 센터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센터장들은 지역 내 20여 명의 콘텐츠 제작업체 제작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보유한 콘텐츠 분야 공용 장비와 관련 기술을 설명했다.

이 온라인 설명회에서 ▲대전대 LINC 3.0 지식산학교육센터에서 실감형 콘텐츠 교육 및 제작 공용 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경일대 디지털 휴먼 융합 콘텐츠 기술 ▲한림대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 활용 측면의 성과 제고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

했다. 우리 대학은 XR 콘텐츠 제작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2회차 설명회는 1월 27일 대전대에서, 3회차는 2월 8일 한림대에서, 4회차는 2월 9일 경일대에서 각 지역 내 콘텐츠 분야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형태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4개 대학은 작년 7월 콘텐츠 분야 ICC 협의회를 구성해 ▲LINC 3.0 사업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 공동 추진 ▲콘텐츠 분야 기술 개발 사업화 공동 추진 ▲광역별 콘텐츠 분야 ICC 간의 협업을 통한 교육 과정 공동 운영 ▲산학 R&D 기획 및 발굴을 목표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ICC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 겸 공유협업 센터장은 "콘텐츠 분야 ICC 협의회 소속 LIKNC 3.0 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 장비와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체와 실질적인 공유 협업 기반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우수 학생 장학금 수여식이다.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에서 1차 LINC 3.0 사업에 참여해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2022 LINC 3.0 우수 학생



▶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현장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7명의 학생을 선발해 총 10,000,000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대상 1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3명, 입선 7명이다.

영예의 대상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 지능응용학과 4학년 유태정 학생에게 돌아갔다.

유태정 학생은 DSU PASTEL 창업 동아리, 캡스톤 디자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LINC 3.0 사업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력이다.

자세한 이력으로는 우리 대학 LINC 3.0 PASTEL 창업 동아리 '스마트 AIoT'로 활동하며 동남권 LINC 3.0 노마드 캠프, 2022 PASTEL Convergence 창업 캠프, 2022년도 학생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2022 랜선으로 만나는 릴레이 글로벌 취창업 특목특 등 많은 창업 프로그램과 대회에 참가했다.

또 2022 제1회 ESG 페스티벌 아이디어 콘, 2022 부산권 6개 대학 LINC 3.0 사업단 연합 B.SORI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2022 제7회 부산 ICT 융합해카톤 대회 2022 동서대학교 한국시스템학회 논문 투

고,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통 특허 출원, ITQ Excel, Word 자격증 취득 등 LINC 3.0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맞는 성과를 보여줬다.

수상 이력도 상당하다. 유태정 학생은 부산 ICT 융합해카톤 대회 최우수상, B.START-UP 2022년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캡스톤 리빙랩 최우수상, 인공지능 챌린지 최우수상, 2022 제1회 ESG 페스티벌 아이디어콘 대회 우수상, 동남권 LINC 3.0 노마드 캠프 우수상, 2022년도 학생 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 교육트랙 최종 선발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실적이다.

우리 대학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한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학생들이 LINC 3.0 사업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지원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올해의 대학교, 동서대학교!

## 서울영상광고제 2개 상 수상



▶ 성민재, 서채빈, 유지호, 정현우 학생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상광고 축제 '서울영상광고제 YCA(Young Creative Awards)'에서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며 올해의 대학교로 선정됐다.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1팀, 금상 1팀, 파이널리스트 7팀으로 총 9개 팀의 작품이 수상하며 최다 수상으로 올해의 대학교라는 영광까지 차지하게 됐다.

서울영상광고제는 2003년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의 영상광고 축제다.

'가장 대중적인 시선으로, 가장 공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국내 광고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온오프라인 영상광고제다.

특히 서울영상광고제 YCA(영크리에이티브 어워드)는 학생들의 공모전 출품작뿐만 아니라 졸업 작품, 미공개 작품 등 2022년 한해 동안 제작한 모든 광고영상 중 최고를 가리는 왕중왕전으로 불린다.

이번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상은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 성민재, 서채빈, 유지호, 정현우 학생의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작품이 수상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 즉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영상이다.

영상에서는 엄마와 딸이 휴대폰 수리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딸이 수리비 80만 원을 요구하며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진짜 딸이 들어온다.

이번 광범한 일상 속 단편 연출을 통해 더욱 치밀해진 보이스피싱과 위협들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심어 주는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TVCF 온라인 심사단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김대엽, 강동호, 김유진, 임혜정 학생의 'Fake Boss'가 수상했다.

'Fake Boss'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면접이 늘어남과 관련된 아이디어다.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zoom)을 통해 비대면 면접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정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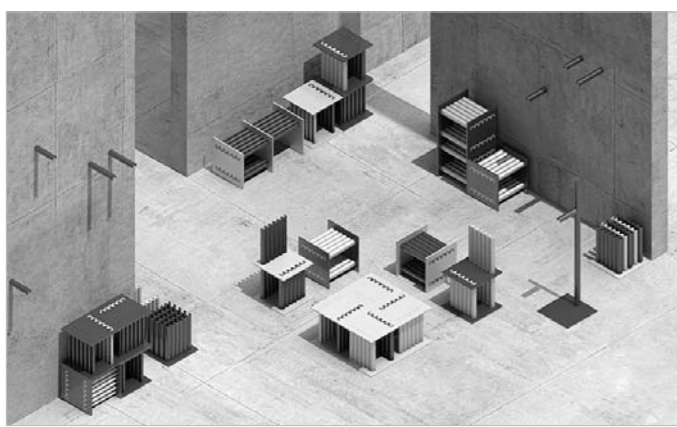
또 마음에 드는 정장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준비돼 있어 직접 구매하려 가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을 수상한 성민재 학생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고, 우리 대학이 올해의 대학교로 선정돼 너무 기쁘다"며, "같이 고생한 팀원들에게 고맙고, 언제나 응원해 주신 가족과 교수님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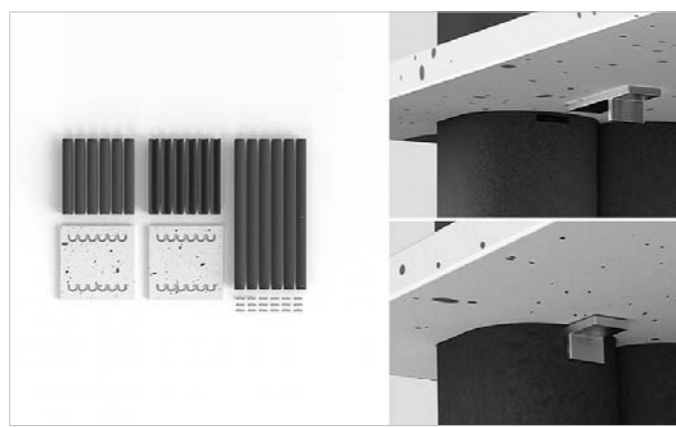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Wiggle Wiggle, 디자인어워드를 흔들다!

## 환경디자인전공 이연수 1등상 수상



▶ Wiggle Wiggle



▶ 사진 출처 - Isola Design Awards

이탈리아에서 매년 개최하는 2022 Isola Design Awards에서 우리 대학 디자인대학 환경디자인전공 이연수 양이 소속된 Team aaa가 1등상인 Winner를 수상했다.

Isola Design Awards는 이탈리아에서 매년 개최하는 디자인 어워드로, 전 세계에서 영감을 주는 작품을 제작하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개별 건축가 및 디자이너'를 선발하는 국제적인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품질, 혁신,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참신한 기술 및 접근 방식을 실험하는 디자이너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뛰어난 작품을 평가하고 축하하는 공간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 무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78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194개의 디자인 및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디자인 및 건축 산업의 주요 인물로 구성된 36명의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배심원단들의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를 뽑았다.

이번 1등상 Winner 수상자인 이연수 양은 2017년에 우리 대학 환경디자인전공을 졸업했고, 2019년 2월에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의 Domus Academy에 재학 중에 동문인 한국인 가

구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Team aaa를 구성하게 됐다.

Team aaa가 출품한 작품의 이름은 'Wiggle Wiggle'이다.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모양으로 가구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방식의 조립을 통해 스킨, 의자, 책장, 테이블 등 여러 용도로 나만의 가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가구 트렌드 속에서 버려지는 가구를 줄이게끔 하고, 지속 가능성 개념을 확장해 사용자와 가구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빠르게 공급해 상품 회전율을 자랑하는 패스트 패션과 같은 시스템이 플라스틱, 비닐과 같은 수준의 환경 오염을 불러온다.

이것이 가구 업계에도 적용돼 2~3년마다 기본 전환 삼아 가구를 바꾸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Wiggle Wiggle'은 이런 사회적 상황을 맞춘 아이디어다. 기본 전환 삼아 가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구를 새로 조립하는 형식이다.

또 톱밥, 석회석, 대리석 가루 등 폐기물을 레진과 혼합해 버려질 수도 있는 재료들을 재사용해 윤리적 소비 가치를 실

현한다.

Wiggle Wiggle 외에도 ▲발전에 가장 적합한 식물인 미세조류를 이용해 물만 정격적으로 교체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 'Light on Lives' ▲태양열 에너지 이용한 온열 담요 'Solae Blanket' ▲버려진 굴 껍질을 이용한 'Material'까지.

올해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이처럼 지속 가능성이 높거나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구에 유익한 작품들이 많이 선정됐다.

앞서 말한 패스트 가구 시스템과 늘어나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그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화려한 작품들 속에서도 해당 작품은 메인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아 전체 작품 중 Top 3에 선정됐다.

이연수 양은 지난 12월 16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가했다. 1등상인 Winner의 부상으로, 2022 Isola Design Awards에서 최종 선발된 디자이너는 2023년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전시할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이연수 양은 2023년 4월에 진행될 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디자이너의 주요 인사들에게 주목받은 이연수 양의 전시회 작품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우리만의 소리로 문제를 해결하다

## B.SORI 프로젝트에서 보여 준 성과!



▶ 최우수상 수상

동서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하고 우리 대학을 포함한 부산권 11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공동 주최한 'B.SORI 프로젝트 시즌 3'에서 우리 대학 국제통상학과 김도연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B.SORI(Busan Solution for Renaissance of ICC & Industry)'는 각 대학 대표 ICC(Industrial Corporation Center, 기업협업센터)가 제시한 문제를 팀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공동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부산 지역 산학연 협력 기반의 교육 및 공유·협업을 이뤘,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시즌 3에서는 참가 대학이 11개로 확대됐다. 또 대학 내 ICC 또는 가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도출해 11개 대학의 학생들의 연합팀이 이를 해결하며 진정한 의미의 공유·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우리 대학과 그 외 부산권 10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은 이번 교육 결과물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선을 개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지역 전문가, 투자 전문가, 기업 현지자 등 외부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총 9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이 중 국제통상학과 김도연 학생이 속한 팀이 '지역 문화 관광지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함께 조립에 속한 인공지능응용학과 유태정 학생과 경영학과 황승환 학생, 경영학과 임서희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부산 지역의 다른 대학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시각을 확장해 팀원들과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선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2023 편집국장 이·취임식



▶ 감사패 전달식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우리 대학 신문사(산학협력관 6층)에서 편집국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광고홍보학과 조수연 전 국장이 이임하고 광고홍보학과 김규리 국장이 취임했다.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지도 교수 축사 ▲국장 이임사 ▲차기 국장 취임사 ▲국장 전달식 ▲감사패 전달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주태연 기자가 맡았다.

조수연 전 국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신문을 읽고, 버려지는 신문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미처 이루지 못한 프로젝트를 다음 국장님이 이어서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2023년 신문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새로 취임한 김규리 편집국장은 차기 국장 취임사에서 "글쓰는 게 좋다. 이런 젊음은 생각으로 시작하는 신문사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스스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만 극복하고 노력하며 버텼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이라는 단어에 아까가 부끄러웠습니다. 김규리 국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드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신문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로 나아가는 대학 신문인 만큼 더 다양한 구성과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우리 대학 신문의 화려한 미래를 그렸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K-대학 동서대, 5년 연속 A등급!

## K-Move스쿨 운영 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K-Move스쿨 캠프

우리 대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도 해외 취업 연수 사업 'K-Move스쿨 운영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 20일, 월드잡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2021년 해외 취업 연수 과정 및 운영 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해외 취업 연수 사업에 참가한 총 79개 운영 기관 및 203개 연수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1년도 해외 취업 연수 사업에 참여한 79개 기관 중 24개 기관만이 A등급을 받았다. 우리 대학도 그중 하나다.

특히 우리 대학은 2017년부터 이번 2021년까지 5년 연속으로 A등급에 선정되는 성적을 거뒀다.

2004년부터 19년 동안 해외 취업 사업을 추진해 온 우리 대학은 20여 개 국가로 1,600여 명의 학생을 파견했으며, 전국 대학 중 최초로 K-Move스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의 K-

Move스쿨을 운영 중이다.

K-Move스쿨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업이 원하는 어학 및 직무 교육으로 구성된 연수를 받고, 수료 후 해외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 훈련부터 장기 훈련까지 준비돼 있다.

최근에는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11기 양성 과정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8기 양성 과정 ▲미국 무역물류 프런티어 9기 양성 과정 ▲미국 IT융합엔지니어 7기 양성 과정 ▲일본 IT엔지니어 6기 양성 과정 등 디자인, 무역, IT 관련 분야를 모집했다.

K-Move스쿨 외에도 WEST 프로그램, 부산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 K-POP 열풍,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



▶대학 전경

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 해외에서의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진취적인 청년들이 늘어나며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해외 취업이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요즘이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학생취업지원처 해외취업지원팀(스튜던트프라자 3층 대학일자리센터)이나 대학 홈페이지 모집 광고, 동서대 홍보대사 블로그 등을 참조하면 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K-Move스쿨을 운영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교육부 장관상 ▲2014년 부산시장상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 ▲2016년 국무총리상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장상 ▲2021년 대통령 표창장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또한 교육부 공시(2021년 12월 31일 기준) 해외 취업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송강영 학생 취업 지원처장은 "해외 취업의 선두주자로서 앞으로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저학년부터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취업 로드맵을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10년 넘게 K-Move스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취업 지원센터는 학생 역량 개발과 함께 취업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을 발굴해 'The Only one'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학년 때부터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우리 대학은 현재 지역 대학 취업을 1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다.

해외 취업의 큰 장애물이던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우리 대학의 행보가 기대된다.

김규리 기자  
Orlrbf1@gmail.com

# DSU PASTEL로 물들이다!

## 창업교육센터 성과 보고회 개최



▶성과 보고회 시상식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월 13일, LINC 3.0 사업 1차년도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 성과를 되돌아보고,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보고회는 지난 8개월 동안 활동했던 창업 동아리의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우수한 내용을 전시하고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2년 LINC 3.0 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의 'PASTEL 창업 동아리'는 올해 총 44팀, 288명을 선발해 시제품 만들기, 창업 공모전 참가, 창업 멘토링, 창업 행사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 보고서 및 마일리지 점수 등을 통해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도를 평가했고, 참여도가 높은 순서로 학생들에게 포상을 줬다.

참여 학생들은 LINC 3.0 사업 1차년도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진 대회에서 수상했고, 실제로 창

업을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줬다.

이번 최종 성과 보고회에서 ▲대상 스마트 AIoT팀 ▲최우수상 대풍, 플루우 팀 ▲우수상 황가네, 솔루션 캠페인, 파도 팀 ▲장려상 D-TREAT, 오픈 사이트, 유니버스, A.L.T 팀이 수상했다.

또 개인 부문에서는 ▲스마트 AIoT 팀의 유대정 학생이 대상 ▲운동하자 팀의 서부경 학생이 최우수상 ▲황가네 팀의 서부경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LINC 3.0 사업 1차년도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2023년도도 창업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창업 활동의 육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이를 통해 창업이 정신이 충만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기자  
Orlrbf1@gmail.com

# 지속적인 산학협력 방향성을 공유하다

## 기업협업센터 성과발표와 부산 마케팅협회 교육 진행



▶기업협업센터(ICC) 성과발표 및 기업교류회 단체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단장 황기현)은 기업과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산학협력 방향성 공유를 위해 '기업협업센터(ICC) 성과발표 및 기업교류회'를 지난 13일 오후 농심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작년 LINC 3.0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교직원들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사업 관련 협력을 진행해 온 부산 디자인진흥원 강병현 원장, 부산 섬유·패션산업연합회 최홍석 부회장, 부산 애니메이션 협회 안용준 회장, 아트 몰링 김명호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행사는 차의과학대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소 김용환 교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Metaverse 산업혁신 만나기'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그동안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거뒀던 XR 콘텐츠 ICC 센터장 조승우 교수, CV 디자인 ICC 센터장 김경민 교수 및 DX 투어리즘 ICC 센터장 성은희 교수의 성과발표가 이어졌으며 각 기업협업센터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은 행사장 내 전시장을 통해 공유됐다.

또한 LINC 3.0 사업단의 산학협력 방향에 대한 김형숙 기업 지원실장의 발표와 함께 ㈜서르 및 웨어코디디자인센터, ㈜리컨벤션, ㈜힐앤지니어링 등 11개 우수 가족 회사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기리는 뜻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은 3단계 산

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다.

6년 간 약 24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영화·영상 콘텐츠, 디자인, IT 융합, 글로벌 비즈니스, 바이오헬스를 중점분야로 특성과 사업을 추진 중이며 '메타 기술 기반 문화콘텐츠 산학연 협력 선도모델'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특성과 분야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향해 특성과 분야를 중심으로 3개의 기업 협업 센터(ICC)를 출범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우리 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며, 대학과 산업체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할 소식은 '인플루언서 앤 마케팅 온 인스타그램 부산 2023'과 관련된 소식이다.

LINC 3.0 사업단은 1월 27일에 부산 마케팅 협회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1회차로 '인플루언서 앤 마케팅 온 인스타그램 부산 2023(Instagram and Marketing on Instagram Busan 2023)'을 유료 제작자 교육으로 부산 디자인 진흥원 이벤트 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인플루언서가 되길 원하는 프리랜서 및 일반인들과 인스타그램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 담당자를 위해 기획됐으며 유료 오프라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제작자 및 프리랜서가



▶산학공동기술 개발과제 프로그램 소개

현장에 모여 교육자 열기는 뜨거웠다.

행사 1부에서는 'INFLUENCER ON INSTAGRAM'이라는 제목으로 '인플루언서'가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슈가비(@sugarbee\_mj/7.3만 팔로워 보유), 레전드 팀이 최경식(@legend.timmy/2만 팔로워 보유), 수연상 대표 박수연 배우(@suyeonshop/2.7만 팔로워 보유)와 달빈가 영팬(@ardoryoung/8천 팔로워 보유)이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강연을 진행했다.

2부에는 'MARKETING ON INSTAGRAM'이라는 제목으로 마케터로서의 인스타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공팔러' 서민경 팀장(@08.l\_korea/4만 팔로워 보유), '하플리' 이지연 대표(@happily\_hanbokbeagle/3.8만 팔로워 보유), 마케터 은진(@success\_eunjin/3.2만 팔로워 보유)과 문영호 작가(@yes\_jam\_yc/6천 팔로워 보유)가 참여한 인스타그램 내 효과적인 마케팅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고 함께 부산의 우수 로컬 브랜드에 대한 시수도 함께 진행했다.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과 부산 마케팅 협회는 부산 시민과 기업 및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SNS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맞춰 대학과 산업체가 연합하여 향

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에 있으니 그야말로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대학의 기업을 수요를 기반으로 IPSS.0을 활용한 채용연계 수요맞춤 인재 양성 교육 과정, DSU PASTEL을 통한 취업 내 창업문화 확산 및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동아리를 발굴 또는 육성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킁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 마케팅 협회 정준오 회장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마케팅에 노출돼 있는 만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인스타그램 마케팅 사례를 통해 멋진 인사이트(Insight)를 얻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현재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시대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맞는 유·무로 제작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우리 대학만의 특화된 산업체 제작자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대세 '광고의 원칙'은 광고 고 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 취업 책 소개 - 광고홍보학과

### 잘 팔리는 광고를 만드는 법



못과는 광고는 쓰레기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광홍이'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의 별명) 들을 위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바로 '못 파는 광고는 쓰레기다'라는 현대 광고의 선구자 클로드 C. 홉킨스(Claude C. Hopkins)의 저서다.

참고로 클로드 홉킨스는 20세기에 활동한 전설적인 카피라이터이자 광고 마케터다. 그는 하드셀(hard sell) 소구의 일종의 선제적 리즌 와이(preemptory reason why) 기법을 장안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를 현실광고에서 가장 확고하게 구현한 것으로 1950년대를 풍미했던 로서 리브스(Rosser Reeves)의 USP 전략으로 완성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는 아직도 광고의 규범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그의 역작으로 스킨스트(Sunkist) 오렌지, 슬리츠(Schlitz) 맥주 광고가 있다.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평소 본인이나 광고에 대해 관심이 많고 마케터를 꿈꾸는 누구나라면 홉킨스를 모르면 안 되는 책이다. 홉킨스는 100년 전의 인물이지만 현대 광고의 변화를 대대적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홉킨스는 과학적 광고를 논했는데, 오늘날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홉킨스의 마케팅에 대한 견해와 의견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 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평가될 정도다. 10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했지만 홉킨스가 제시한 '광고의 원칙'은 광고 고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위의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조사하며 읽어본 내용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광고의 성인(聖人) 홉킨스가 남긴 광고의 성전(聖典)'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홉킨스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 문구였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비판하며 당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존재할 사이비 광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한편 판매에 기여하는 카피와 마케터로서의 크리에이터를 가르쳐 주는 명백하건 고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에서 봤던 내용 중 정말 중요하고도 인상 깊었던 구절은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회의실에서 탁상공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종 심판은 바로 당신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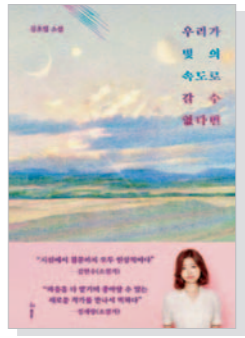
광고는 자기만족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상대를 만족시키고 사회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연구와 고민은 책상이 아닌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끊임없는 생각의 창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한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고 다양한 플랫폼과 기법을 통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다. 그만큼 마케팅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에게 인상을 심겨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감동만 줄뿐 지갑을 열게 하지 못한다면 성공한 광고가 될 수 없다고 책을 통해 느끼게 됐다.

100년 전 홉킨스가 주장했던 과학적 방법의 광고는 오늘날 너무 다양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100년이 지난 현대도 그러하듯 앞으로 10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예비 광고 마케터로서 미래를 보고 개척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책 속의 풍경 -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것



• 책 제목 :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저 자 : 김초엽  
• 출판사 : 허블

김초엽은 2020년대 SF 장르를 이끌어 가는 신인 작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어딘가에 정발 있을 것 같다고 믿고 싶은 근사한 세계를 그려냄과 동시에 정상과 비정상,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며, 소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포함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스펙트럼>, <공생가설>, <감정의 물성>, <관내분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까지 총 일곱 작품이 수록된 이다.

표제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슬렌포니아라는 제3 행성이 가기 위해 우주 정거장에서 홀로 우주선을 기다리는 170세 노인 과학자 안나의 이야기다.

안나는 100년도 더 전의 과거, 우주 개척 시대의 수백이 열리던 시대에 인재를 뽑은 수석 사관 장교인 '딥프리징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당시에는

우주 공간을 외곽해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워프 항법이 한창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억 광년 너머의 행성에 가려면 몇 년의 세월을 우주선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다른 행성에 도착한 기분을 낼 수 있는 냉동 수면, 즉 딥프리징 기술은 과학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워프 항법보다 훨씬 능률적인 웜홀 통로의 존재가 밝혀지자, 워프 항법과 딥프리징 기술은 이전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딥프리징 기술은 워프 항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받고 있었지만, 핵심 과학 기술이라는 타이틀은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딥프리징 연구 지원비와 인력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구가 지체되기까지 했다.

안나는 남편과 아들을 먼저 슬렌포니아 제3 행성에 보내고 연구를 마친 후 곧바로 행성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경제적 효율을 우선시하는 우주 연방이 슬렌포니아행 워프 항법 우주선을 없애고 만다.

마지막 우주선은 안나의 딥프리징 연구 발표가 있는 날, 안나는 예전보다 급하게 연구 발표를 시작했지만 밀려드는 기자들과 촬영팀의 인파로 인해 결국 우주선을 놓치게 된다.

이제 안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녀는 슬렌포니아로 가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우주 정거장에 홀로 남아 자신의 애정과 정충을 바친 딥프리징 기술로 생명을 연장해 가며 말이다. 그녀가 가진 구식 서를 우주선으로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만 년이 걸리는 슬렌포니아 제3 행성에 도

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녀는 떨컩이는 서를 타고 유유히 정거장을 떠난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헤어진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 적어도 그때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 같은 행성 위에서, 같은 대기를 공유했다 말일세.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같은 우주조차 아니야.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위안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김초엽의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를 꼽자면 SF라는 장르가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생길 법한 미래를 그리지만, 이런 과학적인 설정을 알리고자 하는 책이 아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느끼려면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해야 한다. 감정적 교류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시대, 국가 등을 초월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적 교류는 이렇듯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간의 그리움,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생각과 감정의 결이 비슷하다.

이젠 희미한, 100년도 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향한 보고 싶은 마음이 안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

그녀가 가야 할 곳. 안나는 떨컩이는 서를 타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러 간다. 서를 떨컩거리지만, 그 길은 울곧게 가 나 있다.

김규리 기자  
Orlrbf1@gmail.com

이달의 영화 - 박주

## 해피버스데이, 태주 씨



• 영화 제목 : 박주  
• 영화 감독 : 박찬욱

감독님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난 뱀파이어 신부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 거야"

박찬욱 감독의 대답에 질문자와 주변에 있던 감독들은 '이 감독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과연 그랬을까? 실제로 영화 <박주>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관객들과 대중들에게 많은 혹평을 들었다.

하지만 이진진 영화 평론가 등,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박주를 보고 또 보며, 그 기괴한 사랑 이야기에 흠뻑 매료됐다고 한다. 어쩌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영화 <박주>,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박주>는 뱀파이어 신부 '상현'과, 어린 시절 친구 강우의 아내 '태주'의 애가다.

주인공 상현은 해외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백신 개발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실험 도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원자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데, 상현만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를 받아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된다. 하지만 상현은 그 괴로 인해 뱀파이어가 되고 만다. 누구보다 순교한 신부였던 상현은 괴를 원하는 육체적 욕구와 살인을 원치 않는 신앙심 사이에서 충돌하게 된다.

태주는 상현의 친구의 아내다. 무능력한 남편과 히스테리가 심한 시어머니 사이에서 학대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살던 태주는 자신을 아껴 주고, 또 욕망을 일깨워 준 상현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후 상현이 뱀파이어임을 꽤 징그러운 방법으로 알게 된 태주는 그를 무시 위한다. 하지만 공포도 잠시, 진짜 공포는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시댁임을 깨닫고 뱀파이어 상현의 힘을 이용해 남편 강우를 죽이려고 제안한다. 상현은 신부 된 도리로 이를 거절하지만, 태주의 허벅지에 있는 상처를 보고 강우가 태주를 학대한다고 느끼자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셋은 함께 낚시터에 갔고, 그곳에서 강우를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든다.

라 여사가 총격으로 전신마비 환자가 되자 집은 태주와 상현의 차지가 된다. 그러나 둘 사이의 평화도 잠시, 태주가 '강우는 나를 건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며 버린다. 이를 통해 태주의 허벅지에 있던 상처도 강우가 한 짓이 아님을 알게 된다.

강우를 죽인 원인이라고 생각한 게 태주의 자작극임을 알게 되고 분노한 상현은 태주의 목을 졸라 죽여 버린다. 그렇지만 태주를 사랑한 상현은 죽은 태주를 끌어안고 있다가 태주에게 자신의 괴를 먹여 그녀까지도 뱀파이어로 만들고 만다.

태주까지 뱀파이어가 되자 둘 사이의 갈등은 더 심해진다. 태주는 산 사람을 사냥하려고 하고, 상현은 신부인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한다. 갈등이 격화된 상태로 지내던 어느날, 상현과 태주는 마작 모임을 집에 초대하는데, 라 여사의 고발로 인해 강우를 죽인 범인이 자신들인 게 밝혀지자 모두를 죽이고 만다.

이후 상현은 라 여사와 태주를 데리고 숨을 곳 없는 허허벌판으로 떠난다. 죽고 싶지 않아 트렁크에 숨고, 차에 숨던 태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현의 옆에 앉는다. 라 여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햇볕에 타들어간다.

이런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영화 장르는 멜로다. 욕망을 억누르려는 남자와 펼쳐려는 여자, 욕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반대에 있는 두 남녀의 사랑 영화다.

옛날에 본 <박주>는 징그러운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극한의 멜로를 그리고 있었다. 파괴 역시도 미학의 한 부분일 뿐, 태주의 허벅지에 있는 상처를 보고 강우가 태주를 학대한다고 느끼자 살해를 받지 못한 두 사람이 만나 서툰 첫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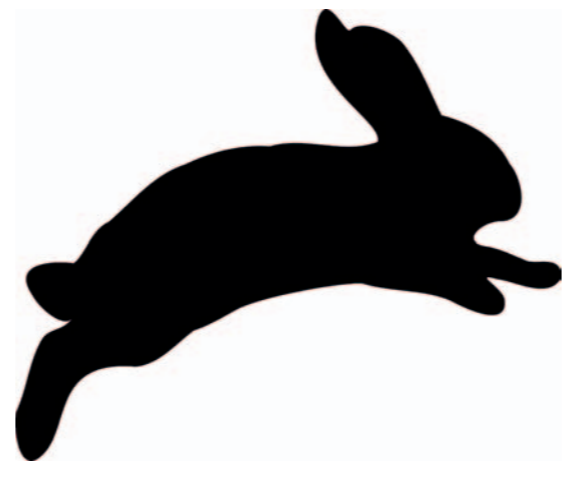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했던 성직자 상현은, 자기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한 여자 때문에 성직자로서의 자신도 잃고, 상현 자신의 인생마저도 잃고 만다. 하지만 이것 모두 이브, 즉 태주가 전하는 선악과임을 알면서도 먹은 아담, 상현의 선택일 뿐이다.

신앙도 없고, 믿는 것도 없다는 태주는 타들어가기 전 급하게 상현의 신발로 갈아신는다. 맨발로 걸거리를 달리느라 피딱지 투성이가 된 그녀의 발에 상현이 신겨 줬던 그 신발이다. 상현이 나는 마음이라는 마음이 믿음보다 큰, 사랑이라는 감정을 심은 결과, 이들은 죽어서 어디서 만나게 될까.

김규리 기자  
Orlrbf1@gmail.com

# 올해는 토끼처럼 '깡충' 도약하자!

## 2023 트렌드와 가까워지기



▶ 사진출처 - 트렌드 코리아 2023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서 올해의 트렌드를 담은 10가지 키워드를 선보였다. 트렌드 코리아란,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망을 담은 책으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발간된다.

트렌드는 지속력과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매년 이루어지는 마케팅, 제품, 서비스 등이 변화한다. 트렌드를 알아야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트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만큼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망에 대해 알아보면 나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비트렌드 예측 전문가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생각한 2023년의 트렌드 키워드는 '래빗 점프(Rabbit Jump)'다.

그는 트렌드 코리아 2023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2023년은 '불황의 해'라고 하며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는 뜻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고사 성어처럼 "교묘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올해만큼은 경기 불황을 잘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 높은 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밝혔다.

올해의 키워드는 ▲평균실종 ▲오피스빅뱅 ▲체리슈머 ▲인덱스 관계 ▲뉴디멘드 전략 ▲다강모멘트 ▲알파세대가 온다 ▲신재생 대응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이를 'RABBIT JUMP'이라는 줄임말로 요약했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올해 같은 불경기를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세상을 이끌지 10개 키워드 중 3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평균실종**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며 사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양분화가 된 추세다.

이제는 교육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정도, 기업들 간 정보량의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봤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을 찾아서 집중하는 '양자택일' 전략과 소수집단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경쟁자들이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승자독식'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젠테크' 열풍이 불

과 동시에 프리미엄 상품들이 유행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점차 N분화되는 경향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따라서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피스빅뱅**

과거는 직장 내에서 구성원보다는 조직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직문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함에 따라 직장환경이 많이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일의 의미가 재정의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시기고 회사는 조직문화와 회사 환경을 발맞춰 손 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구성원들의 니즈에 맞춰 복지와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인덱스 관계**

소수의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예전의 '관계맺기'라면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이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색인(Index)을 붙였다 때었다를 반복하며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관계관리'라고 한다.

효용성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단순히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을 떠나서 다양한 요구에 따라 인간관계를 구분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업, 지연을 넘어 다양한 소통 방법의 변화로 매우 다른 관계양상을 보여 주는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기 쉽고 같은 이슈를 공유하는 관계로 맺어지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2023년은 벌써 3월을 맞이했다. 키워드들을 보면 몇 가지 상황이나 경험을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렌드는 항상 변화한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더 잘 깨닫고 그에 따라 맞는 것들을 하 내외 끼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료출처 : 트렌드 코리아 2023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축제·공연 소식



**운빨 로맨스**

- 기간 : 2023. 03. 09. (목) ~ 2023. 05. 07. (일)
- 장소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주최 : 부산경남 대표 방송 KNN



**정약의 밭**

- 기간 : 2023. 03. 10. (금)
- 장소 : 대극장 (연약당)
- 주최 : 국립부산국악원



**지브리스튜디오 스페셜 음악회**

- 기간 : 2023. 03. 12. (일)
-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 주최 : 웰리스트의 서재



**Flight0312 : 나상현씨밴드**

- 기간 : 2023. 03. 12. (일)
- 장소 :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주최 : 인메이트



**신인류 단독 콘서트**

- 기간 : 2023. 03. 13. (월)
- 장소 :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주최 : KT&G 상상마당, 먼데이프로젝트



**크랙샷 투어 콘서트 : HELLO MY LOVE**

- 기간 : 2023. 03. 18. (토)
- 장소 :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주최 : KT&G 상상마당



**119 옆 낙원빌딩**

- 기간 : 2023. 03. 23. (목) ~ 2023. 03. 26. (일)
- 장소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 문화재단이아

# 새내기를 위한 즐거운 대학생활

## 알차고 재미있는 대학생활 보내는 법



▶대학생활을 즐기는 신입생

▷사진출처 - pixabay



▶조별과제 하는 대학생

▷사진출처 - pixabay



▶대학교 생활

▷사진출처 - pixabay

대학생이라 하면 성인이 됐으니,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놀고, 술을 마시는 등 자유로운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도 자율화가 됐고 모임 관련 규제도 완화돼 새내기들에게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대학생활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맞춰서 즐겁고 낭만 넘치는 대학생활을 기대할 새내기들을 위해 즐겁고 알차기도 하며 추억이 넘치는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사회라는 곳에 발을 들일 20살 청춘들에게 즐거운 대학생활이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 #선배와 동기를 만날 수 있다, 동아리

작년까지만 해도 대면수업조차 어려웠던 시기에 선배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외종에도 동아리 활동은 선배가 소통을 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비해서는 미약했지만 코로나가 거의 완화된 요즘은 다시 옛날처럼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대학의 예술문화 동아리는 ▲얼라이브 ▲미디어믹스 ▲인플러그드 음악 동아리와 ▲마하 연극 동아리 ▲피가람 여행 동아리 ▲BLACK 댄스 동아리 ▲에소리 전통문화예술연구회 ▲있피 만화 동아리 ▲타키온 흑백사진 동아리 ▲필름웍스 영상 동아리 ▲한포바기 문학 비평 동아리가 있다.

봉사활동 동아리에는 ▲더불어사는세상 ▲라포 봉사동아리 ▲백양 로타랙트 연합 봉사동아리 ▲CAN 컴퓨터 학술 동아리 ▲DFLC 주식투자 동아리 ▲메카 마이크로로봇연구동아리 ▲일본연구회 일본문화연구동아리가 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스포츠 동아리에는 ▲DASH 축구 동아리, ▲HOOK, ▲작스(Jocks) 농구 동아리와 ▲검도 동아리, ▲골프터블링 동아리, ▲레드폭스 배드민턴 동아리, ▲레볼루션 스키동아리 ▲블루폴리스 미식축구 동아리, ▲안전제일

보드 동아리, ▲ACE 야구 동아리, ▲여울 태권도 동아리가 있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우리 대학은 ▲예수전도단(YWAM), 학생 신앙 운동회 ▲SFC, 미전도 종족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콥, 채플 찬양팀 ▲V.I.C, 부산의 7개 캠퍼스가 연합하고 있는 ▲D.S.M 동아리가 있다.

재미있어 보이는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배우고 친해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학생활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 #SNS가 스펙오? 나도 인플루언서!

SNS의 영향력이 커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SNS 활용에 적극적이고 능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대외활동별로 장학금이나 자사 취업 시 가산점, 서류면제 혜택을 주는 것도 더러 있어 자기소개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활동은 취업 시 큰 장

점으로 작용한다. 성적, 자격증 등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취업난 시대에 대외활동 모집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기자단, 홍보단, 서포터즈, 기획단 등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나 콘텐츠를 제작해 SNS로 홍보하는 활동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콘텐츠 제작 능력을 SNS로 보여줄 수 있다면 대외활동에 뽑힐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새내기 때부터 SNS를 관리해 종합적인 소통 매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 큰 장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혹시나 다들 알고 있었지만 SNS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블로그, 카페, Facebook, Instagram, Youtube 등이 있다. 여기서 특히 대외활동에 필요한 플랫폼은 Instagram과 블로그, Youtube 정도가 있다. 영상 편집과 사진 촬영과 보정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입문자가 다가가기 꺼리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인플루언서를 양성하

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SNS 관련 연계 수업도 진행을 하니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새로운 교류의 장! 랜선 만남

비대면으로 인해 학생회와 연구회, 문화행사 등 캠퍼스를 다채롭게 만들었던 학생자치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교류가 단절됐었다. 특히 새내기들의 소속감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ZOOM, 페이스타임(Facetime), 구글 미트(Google Meets) 등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택했다.

화상회의 서비스는 학생들의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되며 막혔던 소통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런 서비스는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학교 수업, 회사 업무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ZOOM 등을 활용해 수업을 이어 나갔으며 수업뿐 아니라 팀별 과제, 자치

기구 활동도 화상회의 서비스로 많이 진행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지금도 이러한 매체는 많이 활용된다. 우리 대학도 '플립러닝'이라는 수업방식을 채택해 온라인 강의와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외활동이나 여러 학술 모임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짧게나마 즐겁게 대학생활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고등학교를 막 벗어나 대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는 것이 아직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살 특히 대학교 생활은 제 2의 인생이라 할만큼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도 하나 밖에 없는 20대를 대학교에서 보내며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이 됐으면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카페 스펙업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우리 대학 동아리는 뭐가 있을까?

## 신입생들을 위한 동아리 소개



▶미디어믹스

코로나19 사태가 저물어가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마스크 없는, 규제와 제한 없는 자유로운 시절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 대학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이번 학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신입생들 또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설렘을 가지고 입학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대학교의 꽃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특히나 우리 대학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으며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동아리는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소개할 것이니 잘 보고 선택해서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예술분과 동아리

우리 대학의 예술문화 동아리는 교내외의 행사, 정기 공연을 하는 음악 동아리

▲얼라이브(ALIVE), 작사, 작곡, 악기 연주 및 디제잉까지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유 음악 동아리 ▲미디어믹스와 순수 퐁타리 동아리 ▲인플러그드, 순수 아바추어 대학 연극을 연구하고 연기하는 연극 동아리 ▲마하, 따뜻한 일상에서 벗어난 대학생활의 추억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행 동아리 ▲피가람, 춤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댄스동아리 ▲BLACK,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악기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연구하는 전통문화예술연구회 ▲에소리, 만화를 사랑하는 모임인 만화 동아리 ▲있피, 인생 사진을 촬영하고 직접 현상하고 인화하는 흑백사진 동아리 ▲타키온, 뉴미디어 시대의 차세대들이 이끌어 갈 동시인 모임인 영상 동아리 ▲필름웍스와 문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문학 비평 동아리 ▲한포바기가 있다.

### #봉사활동분과 동아리

농활, 베품그리기, 도시락 배달, 축제행사 도우미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



▶타키온

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더불어사는세상, 사람 간에 마음이 통하고, 따뜻한 공간이 있으며 신뢰와 친근감으로 풀풀 뚫린 인간관계라는 뜻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라포, 국제 로타리 3661 지구 소속 및 백양로타리 클럽의 하위 단체로서 부산 내의 대학 로타랙트 연합 봉사동아리 ▲백양로타랙트가 있으며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응용과 발전을 통해 물질적인 부분에서 나아가 정신까지 교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컴퓨터 학술동아리 ▲CAN, 투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주식투자 동아리 ▲DFLC, 마이크로로봇연구 동아리 ▲메카, 일본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 및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일본문화연구동아리 ▲일본연구회가 있다.

### #체육분과 동아리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스포츠 동아리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상대팀들을 초청해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매 학기마다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대회우승을 목표로 동아

리 활동을 하고 있는 축구 동아리 ▲DASH, 부산 대학 농구 동아리 연맹에서 개최되는 각종 재부 대회에 출전하며, 매주 동아리 연습을 통해 드리블, 숏 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과의 연습 경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농구 동아리 ▲HOOK, ▲작스(Jocks)와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 우승, 부산 시장기예 검도대회 우승, 제 2회 부산 대학검도 동아리연합회 영남대학검도교류전 남자 개인부부 3등(동메달) 수상 등 많은 시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도 동아리, 볼링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볼링을 치러 다니고 부산지역 8개 대학과 함께 지부에 연합해 있어서 우리 대학을 제외한 타 학교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볼링동아리 ▲골프터, 무료레슨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코트보다 훨씬 많은 9개의 코트와 사위시설까지 구비하고 있는 동시에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에 부담 없는 배드민턴 동아리 ▲레드폭스, 여름에 수상스키를 배우고 직접



▶BLACK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겨울에는 강원도 스키장의 스키스쿨에 입사를 해 스키를 직접 배우며 가르치고 전국대학스키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치루며 전국에 있는 대학교와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스키 동아리 ▲레볼루션, 미식축구 동아리 ▲블루폴리스, 공강시간에 자유롭게 보드를 타고 크루징, 보드 대회, 스노에 가서 보드를 즐기며 보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보드 동아리 ▲안전제일, 야구 동아리 ▲ACE, 태권도 동아리 ▲여울이 있다.

### #건강정신함양분과 동아리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우리 대학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올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 ▲예수전도단(YWAM),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적 리더십 양성 및 성경적 대안 실천 운동, 전도와 선교운동의 방향을 가지

고 활동하는 동아리 ▲SFC, 미전도 종족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콥, 채플 찬양팀 ▲V.I.C, 부산의 7개 캠퍼스가 연합하고 있는 ▲D.S.M, 어느 곳에서나 영적 운동을 일으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과송해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 ▲CCC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있는 동아리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교에 있어 선배와 후배가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귀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뉘나뉘나해도 동아리 활동이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 여러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애 첫 대학생활에 추억 하나 장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과 추억, 인연이 있다. 놓치지 말고 소중한 기회를 잡아 보자.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엄광산  
맑은 소리

우리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의 동반자와 같은 스마트폰, 업무와 취미를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다니는 자동차,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비행기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진짜 혁신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인류의 혁신은 암모니아를 합성해 비료를 만든 것이 최고의 혁신이다.

암모니아 비료의 필요성이 제시된 것은 19세기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식량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구성요소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필요하다.

곡물은 탄소, 수소, 산소는 스스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질소 형태에는 질소 기체, 암모니아 등이 있는데 곡물은 질소 기체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암모니아는 이용할 수 있다.

암모니아가 풍부한 것은 사람과 동물의 분뇨다.

옛날 우리가 밭을 경작할 때 사람의 분뇨를 땅에 뿌리던 곡물이 잘 자란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뇨에 암모니아가 풍부

## 인류의 혁신

주태연 (건축공학과·4)

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분뇨를 무한정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분뇨를 갖고 암모니아를 풍족하게 공급하는 것은 한계점이 명확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모니아를 합성해 비료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연구에 착수했다.

암모니아 비료 제작에 성공한 사람은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인데 이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이다.

하버는 1904년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착수했고, 1909년 산화철 촉매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것에 성공했다.

하버가 개발한 암모니아 합성법을 통해 만들어진 암모니아 비료는 식량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인류를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해줬을 뿐만 아니라 20세기가 막 시작됐을 때 16억 명이던 세계 인구를 100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80억 명이 넘게 만들었다.

인류를 굶주림의 공포로 해방했지만, 그는 세계 1차대전에서 독가스 개발을 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살했으며, 10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독가스 중독으로 후유증을 앓게 됐다.

이런 안 좋은 비극을 만든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은 안 좋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비료를 통해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노벨 위원회에서는 하버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다.

우리에게 있어 혁신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식량을 시작으로 많은 인구가 생겼고, 수많은 발명품이 생겼다.

앞으로 뻗어나가는 시간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모두가 그렇듯 현재에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는 당연하지 못했던 게 현재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의 발전이자 혁신이다.

우리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클릭 한 번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을 새벽에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에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에 기술의 발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내 눈에는 변화 없어 보이는 현실은 뒤로 돌아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

혁신의 시대에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노력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현재의 노력이 무의미할 수 있지만 자재를 배고픔에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노벨 위원회에서는 하버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다.

## 죽비소리

## 나에게 혁신을 더하다

김신희 (간호학과·2)

평소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좋아하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좋아한다. 22학번으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새로운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활동을 하며 발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우고 싶은 점을 찾고자 대내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에도 관심을 가졌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다. 나는 스스로 혁신을 더하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관습을 바꿔 새롭게 하고자 노력했다.

첫 번째로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르바이트였다. 20살이 돼 하고 싶었던 희망 사항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였다. 학과 공부량이 많아 주면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에 돌입했다. 다행히 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해와서 스스로 돈을 벌어보는 뜻깊은 경험과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1학년 재학 당시, 학교 신문사에서 수습기자로 활동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교내 신문기자로 일한 경험을 되살려 보며 1년 동안 활동을 해 왔다. 교내신문에 실릴 아이템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를 통해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신문에 실릴 때의 그 짜릿함이 잊히지 않는다.

아쉽게도 이번 연도에는 신문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만 1년 동안 기획 기사, 인터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사를 작성한 경험으로 인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경험이었다.

작년 여름에는 봉사 단체에 가입했다. 졸업 요건에 봉사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단기 봉사만 주로 해 왔던 나에게 정기봉사와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신청하게 됐다. 신청서를 통해 1차로 봉사원들을 뽑고 2차로 비대면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발대식을 통해 임원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같은 기수로 뽑힌 사람들과 위 기수들을 통해 어색하지만 나름 재미있었던 발대식이였다.

봉사 시간에만 집착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고, 봉사 경험을 통해 나 스스로가 느낀 점을 꼼꼼히 기록하며 자기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1학년 2학기가 돼서는 성적을 올리는 것을 주로 하며 다른 활동들을 해나갔다. 학과 프로그램 중 조사이 대학 간호 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운 좋게 참여하게 됐다. 평소 일본어를 조금은 구사할 줄 알고, 해외 간호사에도 관심이 많아 나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조사이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개인 질문과 조사이 문고자 하는 공통 질문을 통해 일본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급여, 진료 등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해외 취업에 마냥 미국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나에게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일본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교류했지만, 해외에서의 간호학과는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간호학과 교육 과정과 비교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같은 학년들로서만 구성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1~3학년이 모여 진행되어 좋은 선배도 만날 수 있었고, 같은 학년이지만 분야가 달라 보지 못했던 친구와도 새로운 인연이 된 것도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대내 활동과 대외활동을 함께 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지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나에게 혁신을 더하는 것 그 자체였던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간호학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공부에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공부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에 비해 두 배의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다른 친구들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지 등의 목표를 세워 스스로 혁신을 더 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스스로 혁신을 더 하는 것은 나를 좀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니 말이다.

## 이달의 명언

혁신적인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혁신을 서두르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네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네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 네 컷 만화

### 생각의 혁신



글을 쓰다 막히는 것처럼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마침표를 찍으면 합니다.

## 사설

## AI 시대에 대학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3월의 대학가는 늘 기대와 설렘으로 부른다. 울조였던 겨울을 뒤로하고 생기 발랄한 새내기들을 맞은 대학 캠퍼스는 대없이 들뜨고도 흥만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올 3월의 대학 캠퍼스 분위기는 어는 때 보다 생기가 넘친다.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기대감, 겨우내 보지 못했던 친구들에 대한 반가움, 캠퍼스 구석구석에 피어나는 새싹과 꽃망울을 보는 일, 새로운 공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3월의 대학 캠퍼스 공간은 오뎅이 짧은 대학생들의 뒤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이 낭만과 설렘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오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는 법은 다른 게 아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통찰력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암기하고 분석하는 일은 AI의 몫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보나 지식을 외우고,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통찰력을 갖추는 데 있다.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무(無)에서 유(有)를 찾아내는 창조적 사고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둘째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질문은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짚어내는 고민과 안목을 거쳐 나온다. 질문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화안과 식견을 갖추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AI가 질문도 만들어내고 답변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AI가 미처 생각

하지 못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을 읽고, 신문을 읽는 행위는 곧 창조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좋은 질문은 토론을 통해서도 길러진다. 토론은 생각의 교환이다. 생각의 교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가 정해진다. 교수를 찾아가 질문을 자주 하라. 교수는 여러분의 지식을 물론 생각하는 법과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길잡이다.

셋째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배워야 한다. 이제 모든 정보와 지식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진다. 디지털 공간에서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진위(眞僞)를 가려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디지털 공간에서 때로는 정보와 지식 가

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판별 능력은 세상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출 때만 길러진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기 어렵다. 뉴스를 많이 읽어야 한다. 뉴스는 '세상의 창'이다. 가짜뉴스도 있지만, '세상의 창'인 뉴스를 통해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

넷째는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인성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價値)이자, 정수(精髓)다. 인성은 따뜻한 마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능력, 협력과 협조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관계 단절로 고립된 환경에서 살았다. 사람 간에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과 협력 관계가 사라졌다.

AI 시대가 되면 여러분은 더 차갑고 고립된 환경에서 살 것이다. 인성은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더없이 필요한 덕목이다. AI 시대에는 협력이나 협업과

같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차가운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온 세대다. 혼자서 놀고, 혼자서 일하는 것에 더 익숙할지 모른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협력이 서툰 사람은 앞으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차가운 디지털 지식인보다 따뜻한 심성을 갖춘 아날로그형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배척하기보다 공감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3월 새 학기는 부푼 기대와 함께 앞으로 시작될 대학 생활에서 고민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함께 떠안는 시기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아직 젊다.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거쳐도 좋다.

다만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 행로를 잡으면 더 좋을 것이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대학 교수 이완수

##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 현재의 나를 뛰어넘는 것

점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것은 바로 존 칼빈의 주장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다. 인간 반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념을 기반으로 오늘날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철저히 죄와 싸우며 삶을 단순화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 계율과 놀음, 음탕과 탐욕, 거짓과 부패 등과 싸우며 죄를 끊어내려고 분투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몰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Metanoia(메타노이아)'라고 하겠다. 'Meta'의 '초월하다'와 'noia'의 '정신'이 합성된 언어로 풀이하면 '현재의 나의 사고체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한다.

'Metanoia(메타노이아)'를 우리말로 '회개'라고 이른다. 곧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행동만 바꾸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신념체계를 바꾸는 것로부터 시작돼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이다. 죄를 짓던 신념체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차원의 신념체제로 단순하게 자기 사명에 몰입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Metanoia'의 본 뜻이다.

요컨대 철저히 반성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찬송가 412장에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잠깐 평화가 어디있나'라는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험하고 고단하다. 자신 속에 있는 죄성과 외부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전쟁을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정신과 삶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혁신을 일으켰다. 결국 300년에 걸쳐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국가로 탈바꿈된다. 이런 혁신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

전 세계를 둘러보자. 아프리카 대륙 옆에 중동, 중앙아시아 그 위에 러시아, 아래로 중국, 가나했고 미개했던 나라들 중 인구가 5,000만이나 되는 큰 나라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밝고 싶은 나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 까닭이 뭘까? 답은 반성과 사명 곧 혁신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혁신을 갈망하는가?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준비가 됐는가.

##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총 상금 3,950만원!**  
**제5회 밀크 창작동화 공모전**  
응모 기간 2023.03.08(수)~03.14(화)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CI 공모전**  
공모내역: (재단)남동문화재단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CI 디자인  
참가자격: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학생, 지역 상권인물)  
신청기간: 2023.03.13 ~ 3.31  
접수처: 남동문화재단 홈페이지(www.namdong.or.kr) 또는 전화 문의(051-800-1000)

**2023 영핸즈 기자단 6기 모집**  
2023년 2월 27일 ~ 3월 7일

**2023 협성문화재단 DT.13 프랑스 파리 모집**  
프랑스 시인학업을 통해 민중의식을 배우세!

**그랜 그랜저-추억의 사진 공모전**  
1990년 이전 부산권구의 옛 모습을 찾습니다. 잊아낸 추억 사진도, 구제된 사진도 좋습니다. 낡은 앨범 속 추억을 함께 나누는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을 제안하라!

- 제5회 밀크 창작동화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3-08 ~ 2023-03-14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기타
- 공모분야: 논문/리포트, 문학/글/시나리오, 예체능/미술/음악, 기타

- (재)남동문화재단 CI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3-13 ~ 2023-03-31
- 응모대상: 상관없음
- 공모분야: 디자인/캐릭터/웹툰

- 더 라이트 핸드 Young Hands 대학생 기자단 6기 모집
- 접수기간: 2023-02-27 ~ 2023-03-07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기타

- 협성문화재단 해외탐방 DT.13 프랑스 파리 모집
- 접수기간: 2023-03-02 ~ 2023-03-13
- 응모대상: 만 19~29세의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 공모분야: 해외

- 부산진구 추억의 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2-27 ~ 2023-04-26
- 응모대상: 상관없음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3-01 ~ 2023-03-21
- 응모대상: 만 19~만 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 구성 팀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제1회 연세-박은관 문학상 공모**

**2023 정원드림 프로젝트**  
우리들의 정원, 우리만의 정원!

**상금/투상 총액 2,800만원 인터내셔널 코믹·만화 스텝 콘테스트 2023**  
테마: 빛과 어둠 | 마감: 2023/4/10

**K-water 장학회 2023 대학생 멘토 모집**  
K-water 장학회, 장학금 지급 관련 멘토를 2023년 02월 01일부터 모집합니다.

**2023 ICT 융합 프로젝트 공모전**  
02.01 ~ 03.31

**2023 한국경영인증원 브랜드 광고 공모전**  
#1,000만원 규모의 상금 #홍보팀 안면 기피 부패 해체

- 제1회 연세-박은관 문학상 (창작지필금) 공모
- 접수기간: 2023-04-01 ~ 2023-04-15
- 응모대상: 상관없음
- 공모분야: 문학/글/시나리오

- 2023 정원드림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참여형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3-17 ~ 2023-03-20
- 응모대상: 정원 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특성화고 학생
- 공모분야: 건축/건설/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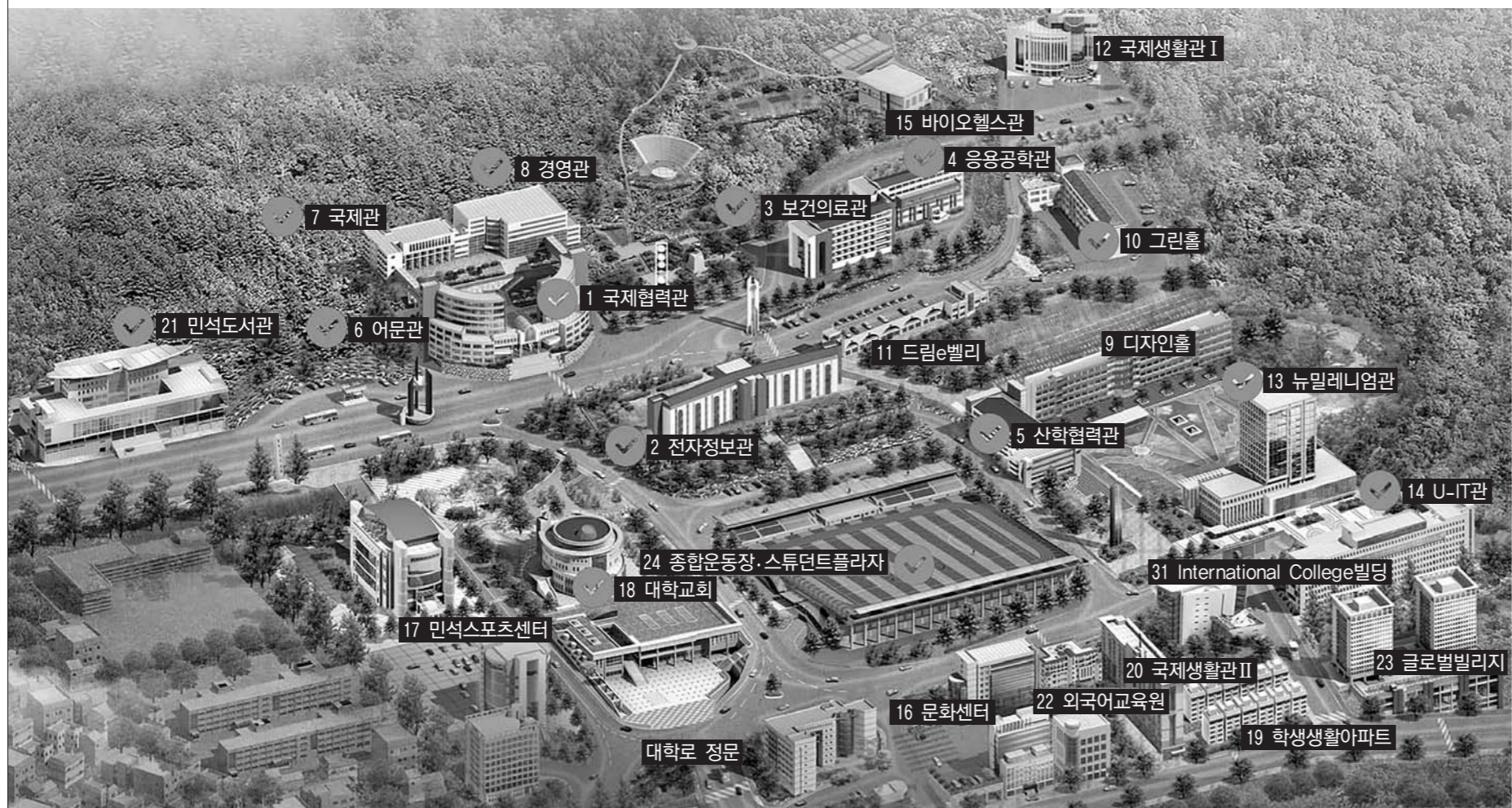
- 인터내셔널 코믹·만화 스텝 콘테스트 2023
- 접수기간: 2022-11-01 ~ 2023-04-03
- 응모대상: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기타
-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웹툰, 웹/모바일/IT, 예체능/미술/음악, 해외

- 아시아교육협회 K-water 장학회 2023 대학생 멘토 모집
- 접수기간: 2023-02-13 ~ 2023-03-12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기타

- 2023 ICT 융합 프로젝트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2-01 ~ 2023-03-31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과학/공학

- 2023 한국경영인증원 (KMR) 브랜드 광고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2-13 ~ 2023-03-13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 대학신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N1	국제협력관	N13	뉴밀레니엄관
N2	전자정보관	N14	U-IT관
N4	응용공학관	N18	대학교회
N6	어문관	N21	민석도서관, 열람실
N7	국제관	N23	글로벌빌리지
N8	경영관	N24	스튜던트플라자
N9	디자인홀		

\* 대학신문은 각 위치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DSU 동서대 대학신문사

동서대신문사 ▼

|수습기자 모집 광고|

수습기자 모집 일정

- 일반기자(편입/복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누구나 가능)
- 객원기자(기자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사정으로 인해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재학생 누구나 환영)
- 동서대 신문사에 관심 있는 동서인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 : 3월 6일~3월 20일까지  
동서대 홈페이지 모집란에서 동서대 수습기자 모집 안내 참조 후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 드립니다
- 문의 : Tel)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8575-9649(편집국장)

~ 3 월 20 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캠퍼스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